



대안가정

통권37호 (계간) <http://www.daeanhme.org>

- 2. 교육/아동그룹홈 실무자 부모교육
- 4.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야기
- 6. '해맑은친구들의집' 이야기
- 8. 국토순례를 다녀와서
- 10.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사했어요!
- 11. 풍성한 추석
- 12. 회비(후원)내역
- 13. 재정보고 및 소식
- 16. 후원안내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12. 11. 10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아동그룹홈 실무자 부모교육

2012년 10월 16일, 대구지역 아동그룹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ctive Parenting of Teens(10대 자녀 부모를 위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AP지도자인 김명희 사무국장이 무료로 진행합니다. 총 7명의 그룹홈 종사자가 참여했고, 매회 3시간씩 6회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화무쌍한 청소년기의 아동들을 돌보는 아동그룹홈 실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회기 : 2012년 10월 16일



자기소개와 참가동기 및 기대 나누기



AP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소개



비디오 자료를 감상한 다음 토론을 합니다.



정리된 차트를 보며 내용을 다시 숙지합니다.



보상과 처벌의 오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회기 교육후 다함께 식사

2회기 : 2012년 10월 23일



‘함께 나누기’를 통해 지난 한주 간의 과제 공유



10대의 문제행동과 숨겨진 목적 찾기



실상황에 적용은 쉽지 않아 고민 고민 또 고민...



비디오 자료 시청. 또 어떤 과제를 던져줄지...



생각하기-느끼기-행동하기! 실패회로와 성공회로.



부모와 자녀의 회로가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



힘겨루기시범-한쪽이 힘을 가하면 다른쪽도 같이 힘을 가하며 맞섭니다.



힘겨루기시범-그러나 한쪽이 손을 뒤로 물리면 상대도 역시 물려섭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이야기

www.Sunnychild.org

▶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유난히 많이 더웠던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방학과 동시에 온 가족이 부산 해운대로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수욕장과 아쿠아리움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누비고 다닌 시간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부산은 처음 가본다더라고요. 기차를 처음 타 보는 아이는 살짝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긴 여름의 하루가 저무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신나게 바닷가에서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리 높여 떠들었습니다. 이모보다 더욱 흥이난 아이들 덕분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부산역에서



▲ 아웃백에서 점심식사



▲ 아쿠아리움



▲ 아쿠아리움



▲ 해운대 해수욕장



▲ 돌아오는 기차 안

▶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은요!!!

중학생인 태호와 동진이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YWCA 캠프(2박 3일)를 다녀왔고, 일주일 후 KCL청소년국토대장정(11박 12일)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준희와 영찬이는 태권도학원에서 주관하는 미니캠프(1박 2일)와 교회수련회(2박 3일)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막내 준혁이는 병원 투어를 했습니다. 언어치료를 받기 위한 검사가 있었는데 MRI를 비롯하여 언어테스트 검사, 작업 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 검사, 신장내과에서 기본적인 검사 등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 즐거운 명절 한가위를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명절을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아빠와 함께 지내고, 동진이는 대안가정 이모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희는 아빠와 함께 청주를 다녀왔고 준혁이는 엄마와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빠의 사정으로 인해 영찬이는 큰엄마(김명희 사무국장)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영찬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얼른 아빠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 새 식구가 생겼어요.

10월 15일 24개월의 현민이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간 막내자리를 고수하던 준혁이는 스스로 “이제 형이에요.”라고 말하네요. 현민이는 또래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서 준혁이와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아기랍니다. 더구나 잠투정이 얼마나 심한지 13kg이 넘는 아이를 잠들때까지 안고 재워야 하고 자다가 깨서 울고 보채기도 한답니다. 현민이가 들어온 날 이모들과 형들이 모여 치킨을 시켜두고 조출한 환영파티를 해 주었어요. 앞으로 현민이를 통해 웃고 우는 날도 많을 테지만 현민이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기도합니다.



이/모/칼/럼 - 해맑은아이들의집



촌스러운 사춘기와 밀당하기

- 빛나이모

우리집 중학생 태호와 동진이 정도면 순하고 착하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며 아이들이 벗어 뒤집어든 팬티까지 빨아주는 사이가 되다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촌스러운 사춘기중인 우리 아이들과의 밀당(밀고 당기기)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을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을 알기에 아이들이 방 한켠에 누워 있거나 거실에 비스듬히 누워 TV리모콘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야구공과 글러브를 던져주며 캐치볼이라도 하고 오라고 권합니다. 주말이면 “애들아~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하고 놀러 안가?”라고 물어보고, 시험치기 전이면 “시험마치고 스트레스 풀러 PC방 한번 달려야지!”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는 ‘언제든 놀고와도 된다. 하지만 놀러가는 곳과 귀가시간을 말하고, 이모에게 꼭 사전에 보고하고 놀아라.’는 약속이 전제되어있어요.

그런데 근래 3일 연속으로 저녁식사시간이

지나 돌아오더군요. 물론 전화도 받지 않고요. 이래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연기를 좀 했습니다.

“이모~”하며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평소같은 “이제 왔어? 좀 늦었네!”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짧게 말하고 문을 열어줬죠.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했는지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이들에게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게임은 재미 있었어? 전화는 안받더라. 문자도 씹었고...”라고 천천히 말했다니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고 슬슬 웃던 아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살짝 긴장을 하더군요. 나중에 와서 “미안해요.”라고 합니다. ㅋㅋㅋ 이모의 승리입니다. 그래도 금방 활짝 웃어주기 싫은 장난끼가 발동해서 “답부터 전화랑 문자도 안하고, 찾지도 않을꺼야!”라고 했더니 “아... 미안해요.”라며 매달리더군요. 사춘기 일탈이 가슴 두근거리며 재미있는 건 알지만 잠자코 허용해줄 수는 없기에 밀당으로 아이들 긴장시킨 하루였습니다.^^



「해맑은 친구들의 집」 이야기

www. Sunnyfriend.org

♣ 엘리트 나라사랑 캠프 & 서울나들이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단비가 엘리트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홍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엘리트나라사랑캠프'를 중국 심양으로 다녀왔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을 돌아보며 사회과목에 더 관심이 많아진 단비! 백두산 천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단비를 인천공항까지 데려다주고 해원과 이모 둘만의 당일 서울 나들이로 아쿠아리움과 애니메이션센터를 둘러봤어요. 단비는 단비대로 해원은 해원이대로 알찬 방학을 보냈습니다.



♣ 여름 가족캠프

여행바우처의 지원을 받아 충남 보령 용두해수욕장으로 8월 13-14일(1박 2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타보는 바나나보트는 다혜의 엄살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탔고 직접 노를 저어야 하는 바다카약에서는 해원이가 단연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기차여행이 조금 버거웠지만 처음 가본 서해바다에서 느긋한 여유를 누렸던 기억은 오래 남을 거예요.



♣ 워터파크 나들이



두류1,2동 주민센터에서 아이들 물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수영복도 새로 장만해 실내수영장으로 후딱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체력이 어찌나 좋은지 2시간이 넘게 물장구, 수영, 다이빙을 했음에도 지칠 줄 모르다가 폐장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나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혜 뮤지컬 공연



1학기부터 학교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인 뮤지컬 수업에 다혜가 참여해왔었습니다. 10월 6일 드디어 그간 수고의 결실을 발표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다혜는 백성!! 처음 해보는 진한 뮤지컬 분장과 의상에 살짝 들떴지만 실수하지 않고 공연을 잘 마쳤어요. 단 두 마디의 대사였지만 최선을 다한 다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개그콘서트

달서구 행복나눔공동체에서 지원해주신 개콘 관람권을 들고 출동! 철가방극장 이후로 개그공연은 첫 관람이네요. 다양하게 준비된 개그 코너를 보며 웃다가 이번에 보지 못한 정여사와 브라운이, 웅감한 형제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 이/모/칼/럼 - 해맑은친구들의집 ♡

1%의 도움을 주려다 99%의 깨달음을 얻게 한 시간들

- 이보나

저는 사회복지자를 갖 졸업한 대학생이자 한동안 '해맑은친구들의집'에 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학생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아동·청소년그룹홈지원사업'을 통해 해맑은친구들의집에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해맑은친구들의집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선진국의 그룹홈과 너무나 다른 상황에 당황스럽고 어찌하여야 할 줄 모르던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웃어주고 살결을 맞대어 주던 아이들이 정말 고미웠기 때문이지요.

제가 아이들과 그리고 이모들과 생활하며 얻은 것은 첫째, '삶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둘째,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셋째, '인연이란 끈은 참으로 강하다' 입니다.

저도 사회복지자를 전공하긴 했지만 늘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생활하며 제 생각은 완전히 변했지요.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자라고 있고 이러한 아이들의 생활을 '옳다', '그르다'의 시각보다 '아, 정말 이런 삶의 형태도 참으로 존중받아야 하겠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그룹홈에 꾸준히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오는 대체인력이라 아이들이 무얼 잘못해도 혼내지 않고 웃어넘기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게 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숙이모가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을 혼내기에 '저런 것은 한 번 짚은 바늘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며칠 후 윤숙쌤의 말이 제 머리를 때렸지요. '아이들은 언젠간 자립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성실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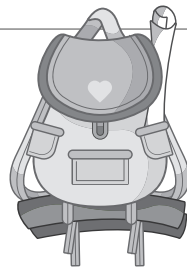
니지요. 때로는 훗날의 좋은 것을 위해 지금은 희생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연이 강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무를 다 마치고, 다음 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아이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새 아이들과 정이 들었는지 참으로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중이라고 하기에 너무 어른스럽고, 때론 그런 어른스러움이 마음 아팠지만 참으로 멋지던 큰 언니 혜윤이, 때론 오자람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을 정말 잘 챙기고 길은 툭 툭거리지만 마음은 따뜻한 단비, 하루를 보면 각쟁이 같지만 이들을 보면 배려심이 넘쳐흐르는 다혜, 절없는 막내이자 너무 귀여운 혜원이까지 잊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살을 부대끼며, 한 가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많은 희생과,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해맑은친구들의집에 사는 사랑스런 혜윤, 단비, 다혜, 혜윤이는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생활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듯이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동정'과 '연민'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이해'와 '깨달음'이 더 필요한 아이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제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헤진 머리카락, 굳은살이 박힌 아버지의 손마디, 마냥 행복해하는 아기의 미소,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 없이 내리는 눈, 잊을 수 없는 너의 그 눈빛,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저리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말처럼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KCL 한국리더십캠프

청소년 국토대장정을 다녀왔어요

방학을 맞이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태호와 동진이가 8월 4일~15일(12일간) 두 발로 땅을 밟으며 리더십을 키우고 꿈을 찾는 국토대장정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두서없이 적어내려가는 이야기지만 함께 나눕니다. 태호와 동진이를 만나면 12일간의 여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 15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 국토대장정

서동진

모두가 쉬고 싶어하는 여름 방학 때,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안 해봤던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국토대장정이었다. 빛나이모가 나한테 국토대장정을 갈 거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잠시 하얘졌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오가면서 '내가 어떻게 국토대장정을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내 심장은 쿵다쿵다 뛰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토대장정을 가기 하루 전날, 나는 자기세뇌를 계속하였다. '나는 준비가 되었고, 나는 잘 할 수 있다.' 자기 전까지 이 말을 계속 나한테 세뇌시키면서 국토대장정을 가는 날 8월 4일의 아침이 밝아왔다.

8월 4일 6시 40분에 알람이 울렸다. 평소엔 잘 들리지 않던 알람이 그날은 너무 크게 들려 깜짝 놀라 일어났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나는 아침에 빨라빨리 움직이되 짐을 빠짐없이 가져가나 수도 없이 체크를 하였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집결지인 동대구역에 도착하였다. 이모랑 작별인사를 하고 12일 후엔 환영의 인사를 생각하면서 원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약 2시간 후 원주에 도착했는데 서울 애들과 부산 애들이 엄청 많이 와있었다. 원주에 도착한 직후 우리는 짐정리를 했다. 텐트에는 두 명씩 잠을 잤는데 내 짝꿍은 권준석이라는 애였다. 첫인상이 좋아 금방 친해질 것 같았고, 께울수록 나와 맞는 부분이 많고 재미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너무 더운 날씨에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있어서인지 30분가량 걷자 다리가 풀렸다. 그늘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며

쉬었다가 다시 행군하였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목적지까지 도보로 하지 못하고 차로 이동하여 조원들과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다.

10일가량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눌 정도로 친해졌다. 게임도 하고 편지도 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잠들기 전에는 생일인 아이들에게 생일파티도 열어줬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았지만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 하루는 원주루트, 춘천루트, 태안루트와 우리 열정원주루트가 모두 모여 함께 행진했다. 마지막 행진이니 끝이 좋아야 한다며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는지 보여주자고 해서 더욱 열심히 행진했다. 마지막 밤에는 각자 티셔츠에 하고 싶은 말을 적었는데 평소 친했던 애들이랑 포옹하면서 나중에 만나자고 말하고 저녁을 먹었다. 11시에 취침을 하는데 내 마음을 하늘도 알았는지 비바람이 거세게 오고 천둥번개가 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각자 집으로 이동할 때이다. 부산에 사는 정연이, 힘은 세지만 마음은 여린 상운이, 수현이, 제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버스로 향했다. 몇 시간 후면 함께 차를 탄 대구 아이들과도 헤어질 생각을 하니 진짜 슬펐다. 12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났다.

이 글을 쓰는 갑자기 또 친구들이 생각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연은 돌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좁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15년, 20년 후에 국토대장정을 함께 한 애들이 다 성공해서 우리끼리 다시 한번 위대한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 국토대장정

김태호

처음 국토순례를 간다 했을 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냥 약간 걷고 뭐 가끔씩은 차도 타고 많이 놀기도 하고 물도 많이 준다고 해서 별로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11박 12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집을 떠나있어야 한다는 말에 기분이 아무렇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모와 헤어 버스에 올라탔다.

우리가 가는 코스는 원주에서 서울까지 200km를 걷는 것이었다. 첫날에는 약간의 예행연습과 복장 등 규정을 들고 텐트 치는 법을 배웠다. 첫째 날에는 물도 막 마시고 얼음물에 샤워도 7분 만에 마치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들 모두 적응하게 되었다. 얼마 잔 것 같지도 않은데 일어나라고 하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인지 눈도 떠지지 않았다. 텐트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은 후 걸을 준비를 했다. 12일 중 첫날 가장 적게 걸었는데 그날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두 차를 타고 갔다. 그리고 그날 숙소는 너무 좋았다. 조장선생님이 배려심이 너무 많으셨는데 배려심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 간식 가져오는 것도 다 양보해서 우리가 제일 늦게 먹었고, 샤워도 늦게 해야 했다.

8일째 날은 무려 20km라는 가장 긴 코스를 만났는데 솔직히 가능할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완주를 했다. 그 날은 비도 오고 힘든 날이었지만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한 날이기도 하다. 동진이는 간식을 먹은 후 차를 탈거라고 하였다. 솔직히 나도 힘들어서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조금만 더 견재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며 걷다보니 어느새 완주하여 기뻐했다. 첫날에는 물을 한

사람 당 200ml씩 줬는데 걷다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2의 물로 한조(12명)가 나눠먹는 노하우도 생겼다. 나중에는 오히려 물이 남아서 의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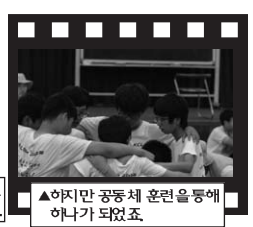
10일째 밤에는 에어컨이 뱅뱅하게 나오는 숙소에서 잤다. 그리고 그날 명량운동회를 했는데 아쉽게 우리조가 졌다. 그날 밤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약간 섭섭했다. 11일째 날 다른 루트 아이들을 만났다고 하여 기대했는데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우리조보다 별로였다. 그날 밤에는 옷에 롤링페이퍼를 했다. 하루만 자면 집에 간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마지막 코스는 서울이었다. 도로도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전원이 안전하게 도착했다. 폐회식을 하는데 12일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너무도 많은 일이 있어서 먼 훗날 내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국토대장정은 많은 추억을 안겨줬다. 폐회식을 하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뭔가 드라마틱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국토대장정을 끝내고 집에 오면서도 또 집에 와서도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편히 쉬고, 물도 막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 피담 흘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간편한 생활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살면서 어쩌면 지금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다.



▲낮선 아이들과 걷는게 어색하고 20분정도 걷다보니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나가 되었죠.



▲순탄한 날도 있었지만 비를 맞으며 걷기도 하고...



▲우리가 밟는 땅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어요.



▲쾌적한 실내에서 잠을 자기도 했지만...



▲아외취침의 날도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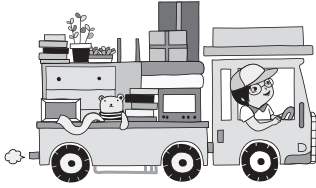
▲열정원주팀서동진



▲열정원주팀김태호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이.사.했.어.요.~

해맑은아이집이 LH공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남대구우체국 뒷편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전 주택보다 깨끗하고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있고 시내와도 가까워요,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에 서둘러 이사하느라 아이들과 이모 모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생각에 피로쯤은 가뿐하게 물리쳤답니다.

새로 이사온 집은 3칸의 방, 넓은 거실과 주방, 2칸의 화장실, 보일러실, 다용도실을 갖추고 있어요. 큰 방은 2명의 이모와 미취학 아동 2명이 함께 사용하며 사무공간을 겸하고 있어요, 이모방과 가장 가까운 곳은 중학생 형 2명이 지내고, 주방 건너에 있는 방은 초등학생 2명이 지냅니다. 거실은 공동생활공간으로 일상을 함께 하기 위해 TV, 컴퓨터, 책상, 책장을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힘들어할까봐 “이사하니 어때?”라고 물었더니 중학생 형들은 전학이 필요없고, 친구들도 많이 사는 동네로 왔다며 좋아하더군요. 형들은 교대를 가로질러 달리면 5분, 걸으면 10분거리에 학교가 있다며 아침이면 한기롭게 늦잠을 잔답니다. 초등학생 동생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전학을 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고 연신 싱글벙글입니다. 집에 오면 담임선생님 이야기기를 비롯하여 새로 사귀 친구들과 달리기를 했는데 이겼다는 이야기를 재잘거리느라 바쁩니다. 초등학교는 집에서 200미터 거리에 있어서 눈깜짝할 사이에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어 좋답니다. 준혁이는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잘 적응하고 있고, 막내 현민이는 이모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간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사로 애써주신 많은 분께 지면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떠들썩하게 집들이를 하려 하였으나 환경의 변화로도 마음이 들뜬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고, 여러분께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집들이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남대구우체국을 지나는 길이면 전화주시고, 따뜻한 커피한잔 하러 오세요. 더 나은 환경으로 인해 이모와 아이들 모두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거실



▲ 아동방



▲ 주방

추석맞이 후원에 감사드려요~



올해 추석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소규모양육시설인 아동그룹홈을 찾아 후원해주시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훈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해맑은아이들의집 후원]

-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에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며 남구청으로 보낸 후원금(40만원)을 해맑은아이들의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대구세무서

남대구세무서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에도 해맑은아이들의집을 찾아주셨습니다. 후원금(10만원)과 간식(과자, 빵, 라면, 음료 등)을 잔뜩 준비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서 방문하셔서 온누리상품권(20만원)을 후원해주시고, 아동그룹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40만원)과 과일(포도, 사과, 복숭아)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아동그룹홈에 대한 궁금한 점들도 질문해주시고 그룹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 한국로봇진흥공단

한국로봇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2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로봇진흥공단이라고 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로봇에 대해 궁금한 건 다 질문하라고 했는데 로봇을 만드는 분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추후에 설명회를 가지고 계속 인연을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명처럼 아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여가생활을 위해 배구공, 축구공, 배드민턴, 줄넘기, 훌라후프 등 운동기구를 후원해주셨습니다. 남자아이들이라 다양한 공을 보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 대한지적공사 대구동부지사

대한지적공사 대구동부지사서 CMS결연을 맺어주셨습니다. 지사장님께서 사전답사를 통해 아이들도 만나고 집도 둘러보시며 적극적으로 결연에 힘써주셨습니다. 지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지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동부지사내에 있는 사원들은 결연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힘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말하라는 든든한 말씀도 참 감사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일손을 멈추시고 아동그룹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후원신청을 해주신 대한지적공사 대구동부지사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해맑은친구들의집 후원]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설정곤 국장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맑은친구들의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일부러 오셔서 재래시장상품권(20만원)과 한식당 식사권(30만원)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식사권으로 상근자들 식사 및 두 그룹홈 아이들 외식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서 재래시장상품권(10만원)과 물티슈(1상자) 페이퍼티슈(1상자)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상당한 부피와 무게임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살뜰히 챙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회비 및 후원 내역 (2012년 7-9월)

이사회비

김규원	90,000
배성우	90,000
배순균	90,000
송광익	240,000
우병걸	150,000
은재식	100,000
이병희	360,000
이수형	600,000
이왕욱	150,000
이태원	150,000
정영숙	150,000
차학태	150,000

정회원 회비

권일섭	30,000
김명희	60,000
김봉섭	30,000
이국진	30,000
이담	150,000
이문기	150,000
이재용	60,000
이춘희	60,000
장중호	90,000
정미옥	120,000

후원회원 회비

(주)동조철강	90,000
(주)성진인더스트리	30,000
(주)신화금기	60,000
(주)와이이테크	150,000
TCN대구방송	300,000
TCN대구케이블방송	300,000
강한우	60,000
고석	30,000
권영학	20,000
권영활	15,000
권점숙	20,000
금자경	60,000
가산약품	30,000
김경현	30,000
김관우	30,000
김광연	30,000
김구	30,000
김기택	150,000
김길종	30,000
김낙원	30,000
김덕겸	30,000
김미라	30,000
김미자	30,000
김봉구	30,000

김삼기	15,000
김상률	15,000
김수득	30,000
김순자	30,000
김쌍호	750,000
김영남	15,000
김영도	30,000
김원규	90,000
김원희	20,000
김은미	20,000
김은형	30,000
김응숙	30,000
김이숙	90,000
김재수	30,000
김점순	30,000
김중열	15,000
김진	30,000
김진석	30,000
김진수	30,000
김창규	30,000
김현애	15,000
김현옥	20,000
김현익	30,000
김효선	60,000
김희호	30,000
나일용	30,000
도교건축사무소	120,000
동진산업(주)	60,000
류정열	60,000
메리츠화재	511,000
문옥희	30,000
문우경	30,000
박광립	60,000
박기덕	60,000
박기호	60,000
박나연	30,000
박만근	30,000
박미경	30,000
박미영	30,000
박성실	30,000
박순우	90,000
박신연	30,000
박연희	60,000
박옥란	30,000
박은진	40,000
박의환	90,000
박정식	150,000
박천훈	30,000
박혜숙	90,000
배명섭	30,000
배성로	4,000,000
배성훈	60,000
배태순	60,000

백석환	60,000
백이웅	60,000
백종규	60,000
삼성목금형산업	30,000
서경희	60,000
손병혁	15,000
송경진	30,000
송계무	60,000
송종환	30,000
송창섭	30,000
심금식	60,000
심형순	15,000
안승규	40,000
안화석	30,000
양재우	90,000
연푸드	30,000
오세창	60,000
오찬형	10,000
오현주	30,000
우언조	30,000
위희탁	30,000
유은주	30,000
유정옥	30,000
윤영철	30,000
윤정은	50,000
윤정희	30,000
은완수	30,000
이동진	60,000
이동환	30,000
이미숙	30,000
이범섭	15,000
이병호	15,000
이보경	30,000
이성희	30,000
이순미	30,000
이승미	30,000
이연생	60,000
이영찬	15,000
이영희	30,000
이옥화	30,000
이유미	15,000
이일영	30,000
이주용	30,000
이진복	60,000
이진옥	60,000
이창훈	60,000
이철훈	30,000
이한주	30,000
이혜영	30,000
이혜진	15,000
이호용	60,000
임복순	30,000
임연수	60,000

임영진	30,000
임익성	15,000
임현락	30,000
임호근	15,000
장경은	30,000
장영철	30,000
장영규	30,000
장운미	30,000
장호덕	30,000
전영평	30,000
전재현	60,000
전재호	30,000
전제혁	120,000
전준환	30,000
정경란	60,000
정연기	90,000
정혜경	30,000
조영국	30,000
조재학	90,000
조재희	30,000
조정자	30,000
조행도	150,000
진석웨딩	90,000
채승욱	30,000
채중해	30,000
천종근	30,000
최영대	30,000
최영선	90,000
최원창	90,000
최정숙	30,000
태광공업사	90,000
태영경	30,000
평화교재	15,000
하다영	60,000
하정옥	60,000
하현열	60,000
한미숙	60,000
한은희	30,000
허유희	30,000
허해정	30,000
홍경자	30,000
홍석진	30,000
홍후근	150,000

일반후원

이마트단체지원	14,872
신한포인트	150,684

후원행사 후원

박한배	3,000,000
영진전문대	2,000,000
이병희	500,000

그룹홈 후원

강안숙	15,000
김미경	30,000
대백선교문화재단	600,000
류지창	30,000
서대현	60,000
이승희	15,000
장영선	15,000
정재식	30,000
허영은	60,000
황운선	20,000

해맑은아이들아집 후원

강은향	30,000
배현석	30,000
이운영	30,000
정용태	150,000

해맑은친구들아집 후원

구교청	60,000
김명희	600,000
이운영	30,000
이은주	30,000
임인섭	90,000

물품후원

그룹홈협의회	
: 홈메트(훈증기, 리퀴드, 리필), 햄, 식용유, 김	
김명숙 : 감겨박스	
나형진 : 식사, 주유, 신발	
도너스캠프 : 캔버스화, 반팔티(3벌)	
또래오래 : 치킨	
삼영교회 : 김밥, 차킨, 꼬치소시지, 떡볶이, 김치, 의류	
이수형 : 복숭아, 박	
이왕욱 : 라면, 김, 튀김가루, 아이스티, 의류	
이정로 : 과일	
이정옥 : 의류	
이태원 : 온누리상품권(75,000)	
정현수 : 의류	

■ 대안가정운동본부 보고 (2012년 7월~9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17,911,000	사무비			11,916,655
회비	회비		17,911,000	인건비	인건비		8,554,820
	이사회비		2,320,000		급여		6,180,000
	정회원회비		780,000		상여금		930,000
	후원회원회비		14,241,000		일용잡금		500,000
	특별회비		570,000		제수당		120,000
후원금			6,540,556	사회보험료			524,820
후원금	후원금		6,540,556	기타후생경비			300,000
	일반후원금		165,556	업무추진비			165,500
	그룹후원금		875,000	회의비			165,500
				운영비			3,196,335
				여비			326,400
				수송 및 수료			1,444,335
				공공요금			232,690
				제세공과금			534,410
				차량비			658,500
차입금			5,200,000	사업비			1,287,650
차입금	차입금		5,200,000	일반사업비			1,287,650
	기타차입금		5,200,000	교육사업			77,800
				대안가정지원사업			200,000
				그룹홈지원사업			8,000
				출판홍보사업			441,850
				후원사업			500,000
				회원사업			60,000
				전출금			12,200,000
				전출금			12,200,000
				해맑은아이들의집			650,000
				해맑은그룹홈			11,550,000
				상환금			2,000,000
				부채상환금			2,000,000
				원금상환금			2,000,000
총계			24,451,556	총계			27,404,305
전분기이월금			7,839,811	잔액			4,887,062
합계			32,291,367	합계			32,291,367

■ 대안가정운동본부 소식

• 배성노 회장님! 고맙습니다.

영남일보 사주이신 배성노 회장님께서 2012년 8월부터 매월 2백만원씩 후원해주십니다.

지난 7월 10일, 영남일보 사옥에서 배성노 회장과 김명희 사무국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재 해맑은친구들의집이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며, 그룹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맞게 지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있으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 제대로 잘 보살피고 섬기는 길도 보답하겠습니다.

• Active Parenting of Teens

2012년 10월 16일부터 대구지역 아동그룹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ctive Parenting of Teens」(10대 자녀 부모를 위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회 3시간씩 6회기를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는 총 7명의 그룹홈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사춘기 청소년을 보살피는 아동그룹홈 실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후 / 원 / 안 / 내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 과 '해맑은친구들의집'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대구은행 : 068-05-005600-9

· 국민은행 : 602-01-0688-119

· 농 협 : 718-01-176941

· 신한은행 : 100-018-271549

아동그룹홈은 7명 이내의 아이들이 2명의 선생님님과 가족공동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니다.

■ 「해맑은아이들의집」 재정보고
(2012년 7월~9월)

세입			세출		
관항	목	결산액	관항	목	결산액
전입금		660,000	사무비		13,440,450
전입금		660,000	인건비		11,495,800
법인전입금		660,000	급여		9,665,000
후원금		757,600	상여		1,002,500
후원금		757,600	사회보험부담금		838,300
지정후원금		17,600	운영비		1,944,650
비지정후원금		740,000	수용비및수수료		793,290
보조금		11,466,180	공공요금		636,360
인건비		10,776,180	제세공과금		150,000
인건비		10,776,180	차량비		365,000
운영비		690,000	사업비		6,789,701
운영비		690,000	운영비		4,505,230
입소자부담금		5,808,610	생계비		2,203,820
입소비용수입		5,808,610	수용기관경비		300,820
입소비용수입		5,808,610	피복비		210,080
잡수입		157	의료비		112,500
예금이자		157	특별급식비		1,678,010
			교육비		1,064,150
			학습지원비		992,150
			학용품비		33,000
			교복비		17,000
			이미용비		22,000
			사업비		1,220,321
			가족여행		488,760
			가족친화		199,351
			자립지원		532,210
총계		18,682,547	총계		21,771,870
2/4분기 이월금		2,513,565	잔액		2,513,565
합계		21,196,112	합계		24,285,435

■ 「해맑은아이들의집」 소식

- 시설장 모임 참석 (8/24, 9/20)
- 실무자 모임 참석 (9/12, 10/17)
- 남구청 회계 교육 참석(9/21) - 윤미란 보육사
- 꼬꼬데이 (8/1, 9/1, 10/2)

■ 아이들 소식

· 동진이가 대안가정을 다녀왔습니다
(2012. 8. 17~19, 9. 28~10. 1)

동진이가 여름방학 기간과 추석 명절을 대안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아빠를 만나지 못해 추석명절을 내심 고민 하던 동진이에게 대안가정과의 만남은 기쁨이 되었고 그 동안 자신을 위해 애써주신 대안가정의 이모께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고 하네요.

· 태호가 아빠를 만나고 왔습니다.(2012. 9. 28~10. 1)

태호가 추석 명절을 아빠와 보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어서 어색함도 있었다고 하지만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네요. 자주 아빠와 만나 좋은 시간 보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준희가 아빠를 만나고 왔습니다

(2012 7. 31~8. 5, 9. 28~10. 3)

준희가 여름방학 기간과 추석 명절을 아빠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아빠의 휴가 기간에 맞추어 대천 해수욕장을 추석 명절에는 쇼핑센터를 구경하고 필요한 옷과 신발을 구입하였고 아빠와 목욕탕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빠와 다정다감하게 이야기 하는 준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준희랍니다.

· 영찬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2012. 7. 28~7. 29)

영찬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늘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던 아빠를 짧은 시간을 통한 만남이었지만 영찬이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영찬이가 해야 할 사항들을 아빠에게 약속 하는 모습을 통해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준혁이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2012 7. 28~7. 31, 8. 25~8. 31, 9. 28~10. 1)

준혁이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매번 엄마를 만나고 돌아올때면 장난감을 꼭 하나씩 들고 오는 준혁이는 최근에 엄마에게 선물 받은 동물 모형 장난감은 가장 아끼는 것이랍니다. 준혁이는 엄마를 만나 엄마가 일하고 계시는 농장도 다녀왔고 농장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고 추석 명절도 보냈답니다.

■ 「해맑은 친구들의 집」 재정보고
(2012년 7월~9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전입금			11,550,000	사무비			13,789,650
	전입금		11,550,000	인건비			11,342,710
	법인전입금		11,550,000		급여		
후원금			1,110,000		상여		
	후원금		1,110,000	사회보험부담금			782,710
	지정후원금		450,000	운영비			2,446,940
	비지정후원금		660,000	여비			10,200
보조금			1,140,000	수용비			1,711,300
	인건비		1,140,000	공공요금			600,240
	인건비		1,140,000	제세공과금			125,200
입소자 부담금수입			4,790,950	사업비			5,839,450
	입소비용수입		4,790,950	운영비			2,978,840
	입소비용수입		4,790,950	생계비			1,387,240
잡수입			114	수용기관경비			477,130
	잡수입		114	파복비			388,190
	예금이자		114	의뢰비			10,000
				특별급식비			657,000
				연료비			59,280
				교육비			1,066,170
				도서구입비			262,780
				학습지원비			441,500
				수학여행비			25,220
				학용품비			41,870
				기타교육비			19,800
				교복비			240,000
				이미용비			35,000
				사업비			1,794,440
				가취행및나뉘			308,940
				가족친화			580,200
				위탁교육			318,700
				문화체험			66,100
				상담및 치료			85,500
				자립지원			435,000
총계			18,591,064	총계			19,629,100
2/4분기 이월금			1,829,330	잔액			791,294
합계			20,420,394	합계			20,420,394

■ 「해맑은 친구들의 집」 소식

• 달서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2012 9. 7)

■ 아이들 소식

• 해원 대안가정 만남

(2012. 7. 29~8. 2 / 9. 29~10. 2)

해원이는 여름방학 기간과 추석명절을 대안가정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입소 후 처음으로 간 대안가정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대안가정 가족들도 모두 만나고 돌아와서 아이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다혜 대안가정 만남(2012. 8. 7~10)

다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대안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대안가정 엄마와 함께 남해에 놀러 갔다면 자랑.

• 해원아빠 만남(2012 8. 9~10 / 10. 15)

해원이는 방학을 맞이하여 늘 당일로 만난던 아빠와 1박2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바다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 다혜엄마 만남(2012 9. 3 / 10. 22)

다혜는 엄마가 계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낯설었는지 조금 어색해 하다가 금방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추석친가정 만남(2012 9. 29~10. 1, 2)

해원이는 가족들과, 단비, 다혜는 친척들과, 해원이는 대안가정에서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효성CMS자동이체신청서

◆ 수납업체및요금정보 (수납업체 기재란)

수납업체	대안가정운동본부	대표자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504-82-09019	요금(대금)종류	후원금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인		연락처	
납부금액		출금일	매월 5일□, 15일□, 25일□ ※미납시 다음 출금일에 재출금
신청계좌 거래은행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 □기업 □외환 □씨티 □새마을금고 □우체국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 □신협 □동양증권 □삼성증권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주민번호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을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예금주	_____ (거래인감) 또는 서명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계좌 거래은행명, 출금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효성에프엠에스(주)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구비서류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인 경우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예금주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에 계약자와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1.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 또는 서명은 출금통장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신청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의 이용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